

# 월봉서원 선비문화 체험관 건립한다

### 광주시 119억원 투입 2023년 준공 체류형 선비문화 체험 관광자원화

고봉 기대승 선생의 철학 등 선비문화를 체험하는 수련시설 '월봉서원(사진) 선비문화 체험복합관' 건립 사업이 본격화된다.

광주시는 "월봉서원 선비문화 체험복합관 부지가 확보됨에 따라 기본계획용역 등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체험복합관은 광산구 광산동 월봉서원 인근에 총 사업비 119억원을 들여 2500㎡ 규모로 건립된다.

광주시는 선비문화 정신의 산실인 월봉서원과 민주·인권·평화 정신의 산실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연계해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유교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체류형 문화관광 기반 시설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달 중 기본계획용역을 착수해 공공건축심의, 설계용역 등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 2023년 완료할 예정이다.

체험복합관 건립사업은 지난 3년 동안 중증 내부 소송 등 갈등으로 사업부지에 대한 의사결정 등이 미뤄지면서 지연됐으나, 최근 광곡마을 주민 동의와 해당 종중의 토지사용 승낙으로 탄력을 받게 됐다. 이는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시는 그동안 사업추진을 위해 수차례 주민과 종중 간담회 등 설명회를 열고 소통의 장을 마련해 왔다.

이번 체험복합관 건립에 따라 안동 도산서원과 함께 두 서원이 배향하고 있는 퇴계 이항 선생과



고봉 기대승 선생의 4단 7정이라는 철학적 사유를 후손이 배우며 체험하고, 선인과 소통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월봉서원은 연간 3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호남의 대표 서원으로, 그동안 다양한 수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2016년 전국 향교·서원 최초 문화재청 명예의 전당 등재를 시작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문화재청 공모에서 우수 사업 3관왕 달성,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살림 드 월봉' 한국관광

공사 야간관광 100선에 선정되기도 했다.

김준영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앞으로 체험복합관이 건립되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발굴해 내·외국인 등 관광객을 대상으로 유교 전통문화 등 선비문화를 체험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본계획용역 추진 시 주민과 종중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월봉서원이 호남의 대표 서원으로 명성을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25~27일 인권활동가 역량강화 심화 교육

광주시는 "우수한 지역 인권교육 강사를 양성하기 위해 25일부터 27일까지 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서 '인권활동가 역량강화 심화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역량 강화 과정은 올해와 전년도 역량교육 이수자 등을 대상으로 혐오와 차별, 사례로 풀어나가는 인권여정, 인권교육 원칙과 방법 등을 이해하고 학습하는데 집중한다.

특히 인권교육 활동가의 지도 능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 보수교육 중심 방식에서 벗어나 심화과정을 진행하고, 참가자들이 강사 시연과 토론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심화과정까지 통과한 교육 이수자는 데이터베이스화해 인권교육 강사로 기관에 추천하는 등 인권 역량 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명순 광주시 민주인권과장은 "모든 시민들이 인권을 배우고 향유하는 인권도시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인권활동가들의 역량강화 교육과정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시민의 인권감수성 향상과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인권교육 전문 강사양성의 사업성을 인식하고 2014년부터 인권교육활동가 역량강화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014년 26명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178명이 수료해 지역사회 인권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광주시는 시민의 인권감수성 향상과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인권교육 전문 강사양성의 사업성을 인식하고 2014년부터 인권교육활동가 역량강화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014년 26명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178명이 수료해 지역사회 인권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위탁 운영 기관' 공모

광주시는 "광주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기관을 공모한다"고 24일 밝혔다. 공모 자격은 공고일 현재 광주시에 주소지를 둔 영유아 보육사업의 전문성과 재정적 운영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개인이며 법적자격을 갖춘 원장이 근무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해 27일부터 이틀간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광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다. 수탁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 3년간이며, 시청어린이집 운영과 시설관리 전반을 책임진다.

광주시청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를 둔 광주시청 직원들의 보육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운영중이다. 현재 만 1세에서 만 5세의 10개반 104명의 아이들과 18명의 교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일용 광주시 자치행정국장은 "시청 직원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며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 능력과 보육에 열의를 가진 많은 기관들이 공모에 참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농기센터 복지센터 고구마·감 전달. 광주시농업기술센터는 최근 남구자원봉사센터와 장애인복지센터 등에 밭고을귀농·귀촌교육 농장 내 실습포에서 수확한 고구마와 감을 전달했다.

## 가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광주시는 "가을철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25일부터 11월말까지 비산먼지 발생 건설공사장 150여 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가을철 각종 건설공사장의 비산먼지 발생으로 대기질이 악화한 데 따른 것이다. 점검대상은 건설공사장, 토사운반차량 등이며, 주거지역과 가깝거나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인접한 사업장, 민원이 많은 사업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내용은 ▲건축공사장 방진벽·방진막 설치 공사 여부 ▲사업장 아저물질 방진덮개 및 토사류 운반차량 상부 덮개 설치 여부 ▲수송 차량 세척용 세론·살수시설 적정 설치 운영 여부 등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전국서 가장 안전한 광주 만든다

### 안전마을·학교·기업 공모

### 11월5일까지...시설비 지원

광주시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만들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주시는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제3호 안전마을, 안전학교, 안전기업 공모를 오는 11월 5일까지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안전마을, 안전학교, 안전기업 선정사업'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 관내 자치구 행정동, 초·중·고 및 20인 이상 제조업·건설업체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 이후 안전마을, 안전학교, 안전기업 각 2개소씩, 우수기관 총 6개소를 선정했다.

올해는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문화운동에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선정규모를 기존 안전마을, 안전학교, 안전기업 각 1개소에서 2개소씩 총 6개소로 확대했다. 안전 우수기관은 분야별 신청기관에 대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합산해 선정한다.

안전마을은 화재, 교통사고, 범죄에 대한

최근 2년 발생현황, 안전학교는 학교 안전사고, 학교 주변 교통사고, 재난안전교육 실적, 안전기업은 최근 5년 및 공사기간 중 재해평가,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인증 실적 등이 정량평가 대상이다.

정성평가는 안전한 마을, 학교, 기업을 만들기 위한 민관 노력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며, 올해는 코로나19 방역대책 및 활동사항을 비중 있게 평가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연말까지 우수기관 6개소를 선정해 안전인증서 수여와, 선정기관 건물에 인증명판 부착 및 안전시설사업비 각 1000만원씩을 지원한다. 또 매년 선정된 안전마을, 안전학교에 대해서는 2000만원 상당의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안전컨설팅, AS를 무상 지원한다.

신동하 광주시 안전정책관은 "마을, 학교, 기업이 안전모델로 지정되면 긍정적인 효과를 주변에 확산시키는 것은 물론 광주가 안전하고 살기좋은 공동체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광주 만들기를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내년까지 전기차 2대당

## 공용 충전기 1대 맞춘다

## 광주시 충전기 1589대 확충

광주시가 전기자동차 증가에 대비해 내년까지 차량 2대당 1대꼴로 공용 충전기를 갖추기로 했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역에 등록된 전기자동차는 모두 4779대, 공용 충전기는 2695대로 차량 1.8대당 1대를 갖추고 있다.

지난달 기준 공용 충전기 1대당 전기차 보급 대수는 울산 2.1대, 부산 2.5대, 대구 2.7대, 서울 3.0대, 대전 3.2대, 인천 3.4대당 1대로, 광주는 비교적 인프라가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광주시는 내년 1월 시행되는 강화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차 보급 확대 추세에 맞춰 내년에는 3846대에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차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등록 대수는 8568대로 급증해 충전기 1대당 차량 비율을 현재보다 다소 약화된 2대 1로 설정했다.

계획대로라면 충전기는 1589대 늘어나 모두 4284대가 된다. 광주시는 자체 예산 편성과 함께 한국 에너지공단, 한국 환경공단, 민간 충전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충전 인프라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흡입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지본 판매하실 분